

“선배는 교과서”... 보고 뛰며 발톱 세우는 아기 호랑이들



고졸 3인방 박민·홍종표·정해영
설레는 생애 첫 프로 캠프

김선빈·양현종이 롤모델
TV로만 보던 선배들 직접 보며
프로로 활약하는 ‘내일’ 다짐

연습경기로 실전 경험
박 “타격·수비 안정감 보일 것”
홍 “실수하며 나아지는 것 느껴”
정 “체계적 훈련으로 하체 힘 단련”

‘아기 호랑이’들이 보고, 듣고, 뛰며 성장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에는 처음 프로 캠프를 경험하는 세 명의 신인 선수가 있다.
우선 지명으로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투수 정해영과 2차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1·2번 지명을 받고 KIA 선수가 된 내야수 박민과 홍종표가 그 주인공이다.

TV로만 보던 선배들과 ‘동료’가 돼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은 매일 성장하고 있다.

경기를 뛰면서 온몸으로 야구를 배우고 있고, 롤모델이었던 선배들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배움을 얻고 있다.

내야수 박민과 홍종표에게는 김선빈이 스승이다.

캠프 출발 전 “김선빈 선배님이 롤모델”이라며 입을 모은 두 사람은 캠프에서는 김선빈을 보며 나란히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다.

박민은 “신기하다. 푹 하고 던지는 데 글러브 안으로 향하고, 푹 치면 안타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KIA 타이거즈의 ‘고졸 루키’ 박민(왼쪽부터), 정해영, 홍종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그냥 다르다”며 입을 연 홍종표는 “똑같은 야구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기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먼저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먼저 말을 건네주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실전을 통해서 프로 선수로 틀을 갖춰가고 있다. 8일까지 치른 16차례 연습경기에서 박민과 홍종표는 각각 4경기, 3경기를 빼고 모두 대주자 대수비 등으로 투입됐다.

아직도 신기한 게 많은 두 사람은 더 많이 배워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다.

박민은 “한 번도 안 해본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 어려웠는데 선배들이 잘 해주셔서 많이 알려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 선배들 보면 연예인 보는 느낌이다(웃음)”며 “연습 경기 나갈 때 프로라는 게 실감이 났다. 다치지 않고 조금 더 기량을 다듬어 돌아가겠다. 중장거리 타격과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홍종표는 “1군 선배님 경기 따라가서 구경하고, 시합 나갈 때 프로라는 게 와닿는 것 같다. 생각이 많은 스타일인데 여기서 실수도 하면서 나중에 실

전에서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좋은 페이스 찾아서 그라운드에서 빛을 발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현종을 롤모델로 꼽았던 정해영도 대선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야구 키를 키우고 있다.

정해영은 “그냥 멋있다. 선배님이 캐치볼, 피칭하는 걸 봤는데 아우라가 느껴진다”며 롤모델과 함께 하는 캠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달 23일 프로에서 첫 실전을 소화한 정해영

은 3월 1일과 7일에도 프로를 상대로 실력 점검을 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하체 쓰는 법을 배우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첫 경기에서 느낀 ‘프로의 높은 벽’도 정해영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다.

정해영은 “스트라이크존도 (아마추어에 비해) 확실히 좁고 유인구도 잘 안 속는 것 같다. 실투는 놓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재미있게 많이 배우고 있다. 건강하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기성용, 라리가 데뷔

마요르카, 에이바르전 후반 37분 교체 투입

기성용(31)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에서 소속팀 마요르카의 승리에 힘을 보탤다.

기성용은 지난 7일 스페인 에이바르의 무니시팔 데 이푸루아에서 열린 에이바르와의 2019-2020시즌 정규리그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2-0으로 앞서던 후반 37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2006년 FC서울에서 데뷔해 스페인 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경험한 기성용의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이였다.

기성용은이천수(레알 소시에다드-누만시아), 이호진(라싱 산탄데르), 박주영(셀타 비고), 김영규(알메리아), 이강인(발렌시아), 백승호(지로나)에 이어 스페인 무대를 밟은 7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지난 1월 4일 이전 소속팀 뉴캐슬(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뛰었던 기성용은 2달여만에 가진 공식전에서 무난한 플레이를 펼치며 팀의 2-1 승리에 힘을 보탤다.

투입 3분만인 후반 40분에는 중원에서 프리킥으로 나서 장기간 정확한 롱패스를 뿌릴 기회를 잡기도 했다. 다만, 기성용의 프리킥이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전반전 주도권은 에이바르가 잡았으나, 선제골은 마요르카의 차지였다.

‘일본 축구의 미래’로 촉망받는 구보 다케후사(19)가 페널티지역 왼쪽을 돌파해 들어가다가 수비수 아나이트 아르비야에게서 파울을 유도해냈다.

키커로 나선 다니 로드리게스는 전반 42분 오른쪽 직접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아 선제골을 넣었다.

에이바르는 공격수 샤를레스를 앞세워 추격의 고삐를 죄었지만 후반 9분 샤를레스의 문전 슈팅이 마요르카의 육탄방어에 막혔다. 10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샤를레스가 시도한 회심의 헤더는 골키퍼 마누엘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오히려 마요르카가 구보의 추가골로 더 달아났다.

구보는 골지역 정면에서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 과감하게 오른발 땅볼 슈팅을 날려 2-0을 만들었다.

후반 37분 구보 대신 기성용이 투입됐고, 마요르카는 후반 47분 에이바르 페드로 비가스에게 추격골을 허용했지만 이는 실점하지 않으며 2-1 승리를 마무리했다.

마요르카는 승점 3점을 추가했지만, 강등권 최상단인 18위(승점 25)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모의투표로 K리그1 시즌 엿보기

12개 구단 MVP·영플레이어 추천...광주 FC 펠리페·엄원상 후보에

‘미리 보는 K리그1 MVP·영플레이어’ 모의 투표로 올 시즌을 엿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시즌 개막을 기다리면서 MVP, 영플레이어 모의 투표를 진행한다.

시즌을 미리 살펴보는 이벤트로 K리그1 12개 구단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가 이뤄진다.

광주FC는 지난 시즌 19골을 터트리며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한 펠리페를 후보로 내세웠고, 한국영(강원), 세정야(대구), 김문환(부산), 진성욱(상주), 오스마르(서울), 양동현(성남), 타가트(수원), 이정용(울산), 무고사(인천), 김보경(전북), 임류첸코(포항)가 MVP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는 지난 시즌 MVP수상자인 김보경을 후보로 내세웠고, 울산 현대는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이창용의 이름을 적어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 시즌 광주와 숲 막히는 1위 싸움을 했던 부산 아이파크는 K리그2 베스트 11을 수상한 수비수 김문환을 명단에 올렸다.

영플레이어 후보 명단에는 엄원상(광주), 이광연(강원), 황태현(대구), 권혁규(부산), 오세훈(상주), 김주성(서울), 박태준(성남), 오현규(수원), 박정인(울산), 김준범(인천), 조규성(전북), 송민규(포항)가 포함됐다.

이 중 엄원상을 비롯한 이광연, 황태현, 오세훈 등 지난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절반인 6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투표는 실제 대상 시상식 선정 방식과 동일



엄원상

하게 진행된다. 각 구단 감독과 주장이 1표씩 행사하고, K리그 취재 미디어도 투표에 나선다. 반영 비율은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이다.

최종 합산 결과는 오는 12일 아프리카 TV에서 방송되며, 방송 시간과 진행지는 추후 공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